

겨울호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Winter | VOL. 5

어느새 살며시 다가온 겨울

한 낮에 잠깐 비취지는 햇살처럼
얼음을 녹이는 개울물의 물줄기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옷깃을 여미는 찬바람이 불어오니
겨울이 오긴 왔나 봄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풍요롭게 했던
가을 들녘의 풍성함도
울긋불긋 물들이고 수놓았던 산하도
떨어지기 싫어 저항하는 낙엽들도
자연의 뒤편길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겨울은
어느새 우리 곁으로
살며시 다가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한 낮에 잠깐 비취지는 햇살처럼
얼음을 녹이는 개울물의 물줄기처럼

차가운 겨울에 따뜻함을 담아
우리는 희망의 기지개를 켭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Winter | VOL. 5

Name Story

길은 혼자 걸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길동무와 함께 하여야
더 행복합니다.
휘청일 때 손 내밀어주고
힘들면 어깨를 내주고
지친 숨소리에 귀 기울여주며
나란히 걷는 이가 있다면,
한걸음 내딛는 발길이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동행합니다.

발행인 태석기
발행처 동국대학교의료원
발행일 2015년 12월 1일 (통권 5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대표전화 1577 · 7000
홈페이지 www.dumc.or.kr
기획·편집·디자인 동국대학교의료원 편집위원회
인쇄 (주)신화프린팅 031 · 905 · 2727

- 04 Letter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라
- 06 Good Doctor 그의 열정! 아무도 막을수 없다.
- 09 Introduction 신경외과 뇌혈관 · 척추 클리닉
- 10 Global 의료관광 와서 건강검진 받고 새로 얻은 인생
- 12 Column_1 찬 바람이 불면 찾아오는 가슴 통증
- 14 Column_2 따라 해선 안 될 세종대왕의 건강관리
- 16 Information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 18 Essay 병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 20 Travel 천국이 있다면 아마도 이 곳, 산타크루즈 트레킹
- 22 Taste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 한방인삼떡갈비
- 24 Smart Tip 알쏭달쏭 의무기록
- 25 Zoom in Dongguk DUMC NEWS
- 31 Together 발전기금 안내
- 35 진료일정 안내

2016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성장하고 또 성장하여라

하루, 한 달, 한 해...

맺음과 시작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사느냐가 우리 삶에 중요한 과제지요. 한 장 남은 2015년 을미년 달력 앞에서 지난 한 해의 일들을 되짚어봅니다.

‘올 한 해 제일 잘한 게 뭘까요?’라는 법륜 스님의 질문에 답도 찾아보려 하고, 아쉬워서 못내 놓지 못한 미련도 들춰봅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가는 시기가 있다는 ‘시절 인연(時節因緣)’으로 보낼 마음 채비도 단단히 해봅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물건이든 내 손안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여도 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맛고 보내온 일임에도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해가 흘러갑니다. 돌이켜보니 기억에 남을 굵직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14년 이맘때였을까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명품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행처럼 이뤄져 온 프로세스와 환경을 바꾸고 또 바꾸는 지루하고 힘든 작업을 완상하고 환하게 웃던 동료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달라진 병원시스템에 만족해하는 고객들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 고생이 눈 녹듯이 사라졌었지요. 힘든 날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의료기관 인증획득이란 기쁨을 만끽하던 것도 잠시, 중등 호흡기중후군(메르스)이 온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근무를 자처하며 내원객의 발열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입구로 뛰어갔습니다. 의료인은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무거운 방호복의 열기도 잊은 채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란 이유만으로 멀리하

던 이웃들의 선입견은 우리를 한 번 더 힘들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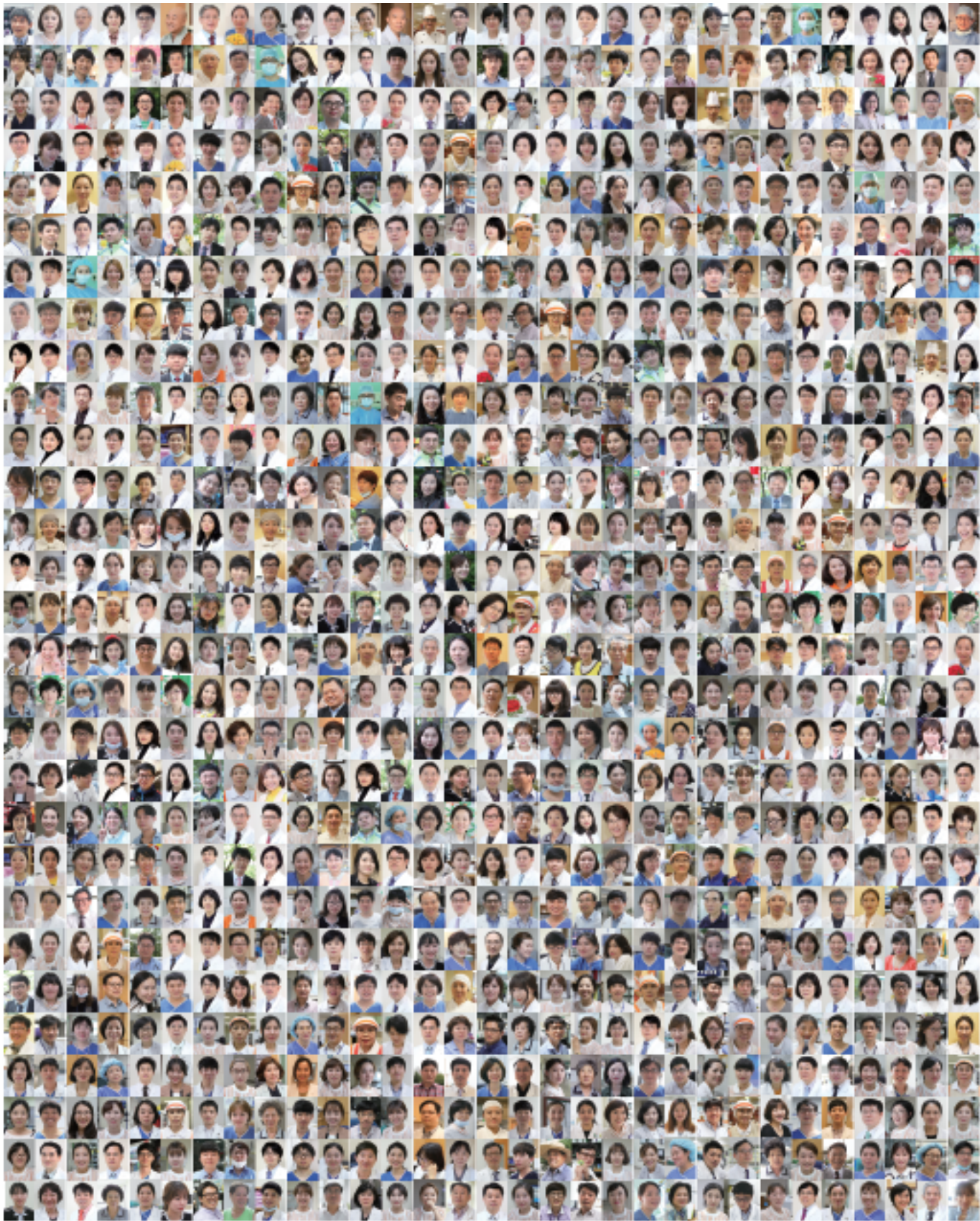
온 직원이 한몸이 돼 메르스로 인한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역할과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본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선포한 ‘비전 2020’에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변함없이 지니고 가야 할 그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1,500여 명이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시지요. 고객중심으로 미래가치를 지향하고, 의료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도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병원’을 만들겠다고 다짐과 약속을 전합니다.

2016년엔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나라 탕왕이 매일 세수를 할 때마다 보며 마음을 되새겼다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나날이 새로워질 것이고 또한 새로워질 것이다)의 말과 같이 지난 일은 기억 저편에 남겨두고 하루하루 꿈꾸고 행동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매일 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 마치 오늘이 내 특별한 삶의 마지막 날인 듯, 이제 지난 과거를 오늘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신우일신’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



그의 열정! 아무도 막을수 없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신경외과

정 주 호 교수

야전군(野戰軍). 긴 시간 인터뷰를 끝내고
기자의 의식의 망(網)에 마지막으로
걸려진 어휘였다.
의료인이었지만 하고 싶은 전공과 스승을
찾아 전국을 돌았다. 모교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전임의를 거쳐 교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였지만 그 등식을 거부했다.
그 야전 병사가 이젠 장교가 되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필드(field)에서의 다양한 임상, 진료 경험이
쌓여 자신만의 FM(field manual)교범이
만들어졌다.
이제 그 경험을 모교 병원에 펼쳐놓기 위해
분주한 정주호(45) 신경외과 교수를 그의
진료실에서 만나봤다.



70년생 정주호 교수는 ‘시대와의 불운’으로 인터뷰
첫 일성을 열었다. 역대 고3 수험생 100만 시대가 딱
3번 있었는데 정 교수는 그 한복판에 있었다. 그것도 세
번을 모두 온몸으로 맞았다. 대입 3수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수도권 대학 정원을 동결하면서 선지원 후시험
제도 때문에 재수, 3수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
니다. 말 그대로 입시전쟁이었죠. 그래도 의사 꿈은 포기
하기 싫었고 막무가내로 버텼죠. 드디어 3년째 운명은
제게 의대의 문(門)을 열어주더군요.”

정 교수와 동국대와의 인연도 무척 재미있다. 둘은 청소
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숙명적으로 얽혀있었다.
동국대 행정 전산시스템인 ‘유드림스’에 ‘정주호’를 검색
하면 ID가 5개가 나온다.(보통은 많아야 2, 3개) 동국대
의대, 의료원 기록에 공대학적부 기록까지 있다. (공대
에 합격한 후 등록만하고 바로 의대 재수에 들어갔음)
여기에 몇 번의 가출(?)로 인한 입사, 재입사가 반복되
다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동국대와의 인연은 당사자를 넘어 대물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 아들의 출생지가 동국대경주병원입니다. 현재 원장
님이 아이의 주치의셨고 전(前) 원장님이 출산 때 제
아이를 직접 받았어요.”

소개 글에서 ‘야전군과 같은 의사’란 표현을 썼던
것처럼 정 교수의 의료 이력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 진료
중심이었다.

한번 필(feel)이 꽃힌 분야는 학연, 지연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의료인에게 연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
은 다 아는 일이지만 정 교수는 학맥에 기대는 편안한 길
대신 연고와 무관한 꼭 필요한 진료과목, 스승을 찾아
가는 불편한 길을 택했다. 의료인으로서 비교적 젊은
나이(45세)임에도 수도권과 부산을 넘나들며 2번의
이직과 10여년의 고행이 그의 이력 속에 녹아있었다.

야전에서 긴 유랑을 마치고 올해 그는 드디어 친정
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탕아처럼 병원이 그를 반겼고
옛날에 그의 진찰을 받았던 환자들이 옛 주치의를 반갑
게 맞아주었다.

8년만의 친정복귀, 정 교수는 지금 경주의 병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가 그리는 모든 비전은 신경외과
의 리빌딩(rebuilding)으로 모아진다.

“밖에서 쌓은 지식, 기술, 경험을 이제 우리 병원에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저희 신경외과를 중증환자 뇌혈관수
술-뇌졸중혈관내수술팀과 두부-척추외상수술팀으로 두
분야를 특화시킬 구체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를 전문화 시키고 다시 역량이 모아지면 척추센터,
파킨슨병으로 진료 영역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정 교수의 모든 계획과 구상은 최첨단 장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다. 다행히 정 교수의 열정과 의지를
인정한 병원측이 장비를 대폭 보강해주었다. 신경외과
핵심 장비인 수술현미경과 수술 항법장치인 내비게이션
이 최신 모델로 세팅되었고 척추 종양수술에 필수장비인
신경감시장치도 최신급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하이엔
드급 MRI와 128채널 CT도 기본 장비로 장착된 상태다.
“시설, 장비 면에서는 수도권 병원에 결코 뒤지지 않습
니다. 국내 최강급 이라고 자신합니다. 국내 최강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정 교수의 장비에 대한 자부는 대단했다. 첨단 기계의
도입과 함께 이를 운용할 전문간호사와 의료 인력도 곧
꾸려질 예정이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이 중증환자 전문
병원으로 거듭나면 울산 근처 외동에서부터 동쪽으로
영덕, 서쪽으로 영천까지 환자들의 모든 응급상황에 대
비가 가능해진다. 신경외과 영역의 중증질환들은 통상
2~3시간 안에 긴급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이
런 응급상황에 필요한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인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갖춰진 상태다.



시간 다투는 뇌혈관질환, 빠른 치료가 관건, 단 1초도 물러설 수 없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신경외과 뇌혈관 · 척추 클리닉

365일 24시간 응급 수술 시스템 가동

지난 5월부터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신경외과는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증증환자 뇌혈관수술, 두부-척추외상 수술분야를 특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신경외과 핵심 장비인 수술현미경과 수술 항법장치인 내비게이션이 최신 모델로 세팅되었고 척추 종양수술에 필수장비인 신경감시장치도 최신급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하이엔드급 MRI와 128채널 CT도 기본 장비로 장착된 상태이다.

서구식 식습관, 스트레스, 고령화 등으로 뇌혈관 및 척추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뇌혈관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치명적인 질환이란 점에서 뇌혈관질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최고의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상주하여 응급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근 고령환자에게서 증가하는 말초신경질환에 대해서도 많은 시술을 하고 있다.

현재 신경외과는 과장인 정주호교수를 비롯, 김진욱, 한홍준 교수 등 신경외과 전문의 3명이 당직을 서면서 응급 환자들의 진료를 보고 있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언제든지 빠른 수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신경외과는 뇌졸중, 뇌종양, 척추질환, 말초신경병증, 운동성 질환, 통증, 두부외상 및 척추외상 등 전문분야로 진료와 연구를 하고 있으며 분야별 최신 기법에 의한 미세수술 및 응급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뇌종양 및 척추 종양에 관한 수술적 치료뿐 아니라 방사선 수술 및 항암치료가 다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주병원 신경외과는 전문진료센터(심장혈관센터, 암센터 등)와의 연계로 응급 상황 발생시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중재적 시술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상의 진료를 다하고 있다.

동국대경주병원 신경외과팀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최첨단 장비로 진단에서 수술까지 뇌혈관질환의 응급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초기 진단부터 치료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진료분야 척추, 말초신경, 소아신경, 뇌혈관질환 **진료문의** 054 · 770 · 8232

1992년 미국 코넬대에서 초청 온 한 신경과 교수의 ‘파킨슨 수술 강의’는 한 의학도를 신경외과로 이끌었다. 정 교수는 현대의학 미완의 영역인 파킨슨병에 도전하기로 일찌감치 진로를 잡았다. 그러나 모교의대엔 그해에 신경외과 TO가 없었다. 정 교수는 다른 전공을 택하는 차선택 대신에 다른 병원을 선택했다. 어찌면 그때부터 야전군 생활이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수도권 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파킨슨, 척추치료수련을 받고 석박사를 끝냈다.

졸업 후 다시 동국대경주병원으로 돌아왔다. 친정에서 편안한 진로가 열려있었지만 2007년 그는 다시 한 번 도발을 계획한다.

이번엔 부산이었다. 증증환자 전문치료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부산으로 내려간 그는 한 대학병원에 신경외과를 만들어 의료진을 꾸리고 전문 클리닉을 세웠다. 그렇게 몇 년을 뛰어다니면서 증증신경외과질환 전문치료에 매달렸다. 그 사이 병원이 자리를 잡았고 외형적으로 성공도 거두었다. 당시 정 교수 소속 병원이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을 제치고 증증외상 및 뇌혈관 특성화센터에 동시에 선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그를 불렀다. 의료 환경이 변화되면서 경주에서도 그의 자리가 절실했던

것이다. 자신을 의료인으로 교수로 만들어준 친정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제 정 교수는 경주에서 증증외상센터를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 유망시절 수도권이나 부산에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여기서도 때론 많은 난관이 그의 앞을 가로 막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야전에서 단련된 그의 뿔끼를 아무도 꺾지 못할 것이다.

증증전문센터는 소위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인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게 너무 소중한 임무입니다. 또 앞으로 그러한 증증질환의 전문적인 치료에 대한 지역 내 수요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수익 전망도 밝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경주에서 멋지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

정주호 교수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1997)하고 가천대학교 길병원 신경외과에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 후 가천대 길병원 척추신경치료연구소 전임의(2002)를 거쳤으며 가천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2012년 9월에서 2014년 3월까지 미국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 Rochester, USA)에서 연수했다.

전문진료분야 척추, 말초신경, 정위기능, 통증

진료시간 오전 » 월, 목 오후 » 월, 목

문의 신경외과 외래 054 · 770 · 8232

Здравствуйте!

카자흐스탄 환자,
폐암 수술 성공적으로 마쳐

의료관광 와서 건강검진 받고 새로 얻은 인생



주치의 둔 본국에선 폐암인 줄 몰라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 방문해 건강검진 후 폐암판정을 받았지만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건강하게 본국으로 귀국하게 됐다. 2012년 국제진료센터가 개소하고 좋은 성과들이 많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암을 진단해 바로 수술에 들어가 회복한 사례는 흔한 일이 아니다.

카자흐스탄 카림벡(58세)씨는 본인이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카자흐스탄에 살면서 주치의가 매번 정기적인 검사를 해주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 암 판정을 받고 큰 충격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상태였다고 들었다”며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끝까지 항암치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온 사업가 카림벡씨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종합검진 중 폐암진단을 받은 것은 지난 7월이다. 양쪽 폐에서 종양을 발견한 담당의사 홍부외과 최진호 교수는 수술이 급하다는 것을 알렸고 카림벡씨가 바로 수술에 동의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여름휴가 즐기려고 온 한국인데 수술을 할 줄이야”

처음 폐암선고가 내려졌을 때 카림벡씨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본국에서 부유층에 속하는 그는 주치의까지 두고 있어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것. 젊어서부터 담배를 피워왔기 때문에 폐암검사는 본국에서 꾸준히 해 왔었고 한국에 와 가벼운 마음으로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카림벡씨 부부는 함께 온 친구 부부의 추천으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후 원래는 수도권과 제주도를 여행할 생각이었다. 여름휴가를 한국에서 보내면서 가볍게 종합검진을 받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은 것은 부부에게 큰 충격이었다.

부부는 폐암이 발견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의 모든 관광일정을 취소해야 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1년도 살기 힘들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망연자실한 심정이었다”고 카림벡씨는 당시 심정을 얘기했다.

“처음엔 병세가 심각하다는 말에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함께한 아내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응원으로 한국에서 최대한 빨리 수술받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이 사실 그대로 자세히 설명해준 것에 감동 받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랐다.”- 카림벡

조용한 암인 폐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

폐암은 조용한 암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암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통증(증세)이 거의 없고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암이다. 암이 꽤나 진행된 상황임에도 카림벡씨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양쪽 폐를 모두 수술해야 했던 카림벡씨는 왼쪽 폐를 먼저 수술하고, 경과를 보면서 2주 뒤에 오른쪽 폐도 수술에 들어갔다. 다행히 두 번의 수술은 모두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40여 년을 매일같이 담배를 피웠기에 회복 중에도 문득 찾아오는 흡연욕구가 그에게 큰 스트레스였다. 게다가 타국에서의 치료라는 스트레스로 두 번째 수술을 마치고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술을 맡은 홍부외과 최진호 교수와 혈액종양내과 이현정 교수를 비롯한 담당 의료진과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은 비상상황에 돌입해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카림벡씨 치료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상태가 조금씩 나아졌고 환자는 다행히 수술 전 상태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기력을 회복했지만 환자는 앞으로도 항암치료를 꾸준히 받게 된다. 향후 2년간 항암치료는 혈액종양내과 이현정 교수가 담당하기로 했다.

퇴원을 앞두고 카림벡씨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손자 결혼식까지 꼭 보고 싶다”며 장난기 어린 표정을 보였다. 그는 “지금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가 가능한 것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임직원들 덕분”이라며 “의사, 간호사, 통역사 모두 친절하게 대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카림벡씨는 앞으로도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을 찾아 CT검사 등을 통해 추가 항암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홍부외과 최진호 교수	전문진료분야 폐식도 외과, 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기흉, 흉강경 수술 진료시간 오전 » 월, 수 오후 » 수, 목 문의 홍부외과 외래 » 031 · 961 · 7801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이현정 교수	전문진료분야 혈액질환(골수종, 백혈병, 빈혈등), 항암치료(위,대장,간담도,비뇨기), 양한방 암환자 협진 클리닉 진료시간 오전 » 월, 화, 수 오후 » 목, 금 문의 혈액종양내과 외래 » 031 · 961 · 7100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찬 바람이 불면 찾아오는 가슴 통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혈관내과
김 지 현 교수

전문진료분야
판막질환, 심부전,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진료시간
오전 » 수, 토(격주 진료)
오후 » 화, 목, 금

문의
소화기내과 외래 031·961·7800



‘찬바람이 불면’으로 시작하는 노랫말 가사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 유행하였던 유행가 가사인데 가을철이면 가끔 라디오를 통해 들려옵니다. 제가 일하는 심장내과는 찬바람이 불면 떠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는 초진 환자를 맞을 준비로 조금 더 분주해집니다.

사람마다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기에 가슴 통증, 체기, 명치끝의 불편감, 고춧가루를 뿌린 듯 답답한 가슴, 가슴이 빠근해요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턱으로 뻗치는 증상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심장혈관내과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깨 통증이 더 큰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심증 증상은 찬바람이 불면서 시작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장 내 좌심실에서 대동맥판막을 지나 대동맥으로 혈액이 공급되면서 전신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 심장 자신을 먹여 살리는 심장 동맥의 분지부터 내게 됩니다. 심장 동맥은 생긴 모양이 과거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관상동맥이라고 더 자주 불립니다. 찬바람을 맞아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똑같이 좁아진 혈관 내경이라도 그 좁아진 정도가 심해지므로 수축한 심장혈관(관상동맥) 흉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장혈관은 좌측에 크게 2가닥, 우측에 1가닥으로 나뉘어 심장 근육을

통증이 찬 바람을 쐬거나
운동시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 발생하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가까운 심장혈관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심혈관질환의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먹여 살립니다. 이러한 심장혈관 중 한군데 이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좁아지거나 급작스럽게 막혀 흉통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아울러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심장은 내장 구조가 특이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곤 주로 좌측에 있고 좌측 거드랑이 쪽을 향해 팽이처럼 생겼으며 자신의 주먹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에서 기인한 흉통은 주로 우측이 아닌 좌측 가슴부위의 통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관상동맥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많은 매체를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자분이 여자분 보다 질환 발생 빈도가 높고 흡연 또한 심장혈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 특히 운동부족으로 인한 내장비만 증가로 인해 복부 비만이 진행되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통증이 찬 바람을 쐬거나 운동 시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 발생 하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가까운 심장혈관 내과 외래를 방문하여 심혈관질환의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합니다.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에는 관상동맥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 심장혈관 CT 촬영술을 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시에 발생하는 흉통이 어느 정도 의 운동 강도에서 발생하는지 심전도의 변화는 동반하지 않는 지 확인하기 위해 운동부하검사를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핵의 학과 약물을 이용한 유발 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의 경우 동반되는 여러 위험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함께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 보는 분과 좀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분으로 나뉘어 적절하게 치료 받게 됩니다. 똑같은 내경의 혈관이라고 하여도 여러 원인에 따라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좁아진 정도가 달라져 유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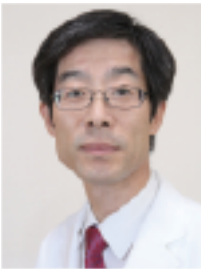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춘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증이 최근 들어 점차 악화되는 양상으로 이전보다 호전 시 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조금 더 빨리 가까운 심혈관 센터 또는 클리닉을 방문해야 합니다. 안정 시에도 흉통이 있거나 흉통 시 응급 조치로 드실 수 있는 설하 약제를 반복 투약 함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30분 이상 지속되는 흉통이 발생한다면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여 심근경색 가능성에 대해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서서히 동맥경화성 변화로 좁아지던 혈관 의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 화산폭발처럼 갑작스레 혈관이 막 히게 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으로 본원에 내원하는 환자분 중 상당수가 처음 발생한 흉통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주된 증상으로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빠른 재관류가 심장근육의 괴사를 줄여 차후 심근의 흉터, 손상 정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중 통증으로 깨어나거나 수 면을 저해하는 통증이 있다면 늦은 시간이라도 가까운 응급실 을 꼭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 내원 직후 심전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중대한 심근경색 여부를 감별할 수 있고, 동시에 시행하는 응급혈액 검사로도 위중한 질환을 진단할 수 있으므로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검사상에서 특별하 게 나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꼭 심장혈관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예약하고 권유하는 심장혈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본인의 관상 동맥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 겨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혹 본인의 건강에 이상 신호는 없는지에 대한 대비가 꼭 선행되어야겠습니다. ●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 노하우

따라 해선 안 될 세종대왕의 건강관리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정지천 교수

전문진료분야
노인중풍, 당뇨병, 전립선질환,
성기능장애, 기침, 천식

진료시간
오전 » 화, 수, 금
오후 » 월, 목
문의
한방내과 외래 031 · 961 · 9030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성군이라면 세종대왕을 첫손꼽지 않나 생각된다. 그렇지만 아무리 세종이라도 따라 해선 안 될 부분이 있다. 건강하게 장수하셨다면 더욱 많은 업적을 남겨서 조선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겠지만, 안타깝게도 54세에 세상을 떠나신 탓이다. 그것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아 마치 종합병동 같은 경우가 되어 고생고생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세종은 무인 집안 출신의 튼튼한 골격을 물려받아 체격과 힘이 좋았다. 그러나 22세에 왕이 된 다음 해에 큰아버지인 정종, 어머니 민씨 그리고 아버지 태종이 잇달아 승하하여 7년 동안 국상을 치르느라 술과 고기를 비롯한 기름진 음식을 멀리 하면서 제사에 일일이 참여하다 보니 심신이 지치고 말았다. 그래서인지 젊은 시절부터 눈병, 각기병, 임증, 종기, 설사, 이질, 두통, 부종 그리고 소갈(消渴 : 당뇨병) 등 온갖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 주된 병은 당뇨병이었고, 나머지는 대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세종은 식성이 좋은 대식가였고 고기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을 만큼 육류를 좋아했으며 몸도 비만형이었고, 늘 앉아서 정사를 돌보고 책을 읽느라 과로한 데다 운동이 되는 사냥 같은 것에는 흥미가 없었으니 30세 무렵에 당뇨병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비뇨기 질환으로도 엄청 고생하셨는데, 성병인 ‘임질’에 걸렸다는 분석도 있었다. 실록에 “지난해 여름에 임질을 앓아 오래 정사를 보지 못하다가 가을, 겨울에 이르러 조금 나아갔다(去年 夏 又患淋疾 久不視事 至秋冬小愈)”고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나온 ‘임질’을 성병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사관이 한방 병증인 ‘임증(淋證)’을 임질로 기록했기 때문이지만, 임증과 임질은 큰 차이가 있다.

임질은 임균성 요도염(gonococcal urethritis)으로서 임균(gonococcus)에 감염되어 걸리는 ‘성교 전파성’ 질병이다. 임증(淋證)은 소변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으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를 통틀어 병증으로서, 임(淋)은 배뇨 상태를 숲에 비가 내릴 때 빗물이 나무에 걸려 똑똑 떨어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임증에는 8가지가 있는데, 열림(熱淋)과 고림(膏淋)은 신우신염, 방광염, 요도염에 해당되고, 사림(砂淋)과 석림(石淋)은 요로결석, 그리고 노림(勞淋)은 전립선염에 해당된다.

세종의 임증은 열림과 고림이 아니라 노림으로 봐야 한다. 노림의 노(勞)는 육체적, 정신적, 성적인 과로를 의미한다. 항상 오래 앉아 책을 읽고 정무를 살피느라 방광 아래 위치한 전립선이 눌려서 자극을 받았고, 수많은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났다. 또한 6명의 부인으로부터 무려 22명의 자녀를 두었으니 당연히 성생활도 왕성했을 것이므로 전립선에 무리가 되었을 것이다.

세종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소변의 양이 줄므로 전립선염이 악화되기 쉽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땀이 적으므로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염증 물질의 배출이 원활했기에 호전된 것이다. 전립선염도 쉬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지만 계속 무리했기에 그토록 악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너무 열심히 왕의 업무를 본 것이 문제였다.

한편, 세종은 34세경부터 안질에 걸려 44세경에는 어두운 곳에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 정도로 시력이 떨어진 시각장애 상태였다. 어릴 적부터 지나친 독서로 눈을 혹사시킨 탓이지만, 눈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열(熱)’이다. 의욕적으로 국정을 펼치느라 과로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과식하거나 술을 자주 마신 것이 열을 올렸던 것이다.

세종은 결국 별세할 때까지 8년간은 세자인 문종에게 섭정을 맡겨 국가의 중대사를 제외한 모든 결재를 넘겨주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추구하던 주요 과제는 하나도 멈추지 않았고 실명 위기까지 가면서도 매일 새로 편찬한 책들을 하루에 수십 권씩 검토했다고 한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 세종 25년, 반포한 것이 28년으로 승하하기 4년 전이었으니 우리의 한글은 투병 상황에서 탄생한 위대한 업적이었다. 그 무렵 아들인 광평대군과 평원대군, 그리고 왕비인 소헌왕후가 연달아 세상을 떠나기에 상심하여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더욱이 마지막 2년은 세자였던 문종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한때 중태에 빠지기도 했으므로 세종이 거꾸로 세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명을 재촉했던 셈이다. ●



미디어 속 정지천 교수

MBC 라디오 건강한 아침 황선숙입니다.
〈생활속의 한방〉출연중
방송시간 ▶ 매일 아침 05:00~05:55

조선일보 닷컴 프리미엄 조선
〈정지천의 연인들 건강장수비결〉연재중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정지천의 양생비결〉연재중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

2015년 9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3.1%인 662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한 ‘2014년 건강 보험통계연보’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통계들은 인구구성 비율 대비 높은 의료비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평균 대비 많은 약품을 복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약물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10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운동실조나 과도한 졸음, 일어설 때 어지러움 등을 유발하여 넘어져 다치거나, 소변을 보기 힘들게 하는 ‘노인주의 의약품’을 지정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노인 주의 의약품’ 처방 · 조제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약은 양날의 검이다.”

약은 인체 내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질병 또는 증상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약은 질병을 치료하는 이로움을 보여주지만 반드시 몸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약은 독이다” 다만 사용량이 문제일 뿐 독성이 없는 약은 없다는 것이다. 그 예로, 두통약의 15~30%가 위장과 간에 자극을 준다. 이러한 약의 특성에서 나온 약물 복용의 원칙은 약으로 인한 이로움이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연령과 질병의 상태에 따라 의약품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몸 속에 들어간 약은 장에서 흡수되고 혈액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퍼져 병소에 도달, 작용하며 간의 해독 작용 등을 거쳐 몸속에서 변화되어 콩팥을 통해 소변 등으로 배설된다. 많은 약물들이 보통 간과 콩팥의 기능에 따라 복용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노인 환자들은 노화로 인해 간과 콩팥의 기능이 저하되어 성인의 일반적인 복용량보다 감량하여 복용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 환자의 질병 치료는 더욱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아래의 예들은 전문가와 상의 없이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이다.

- ① 처방약품을 복용 중 일반의약품을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
 - 중복복용이나 약물상호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예) 전립선비대 환자가 종합감기약 복용 시 급성요로폐색으로 소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②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임의로 복용량을 늘리는 경우
- ③ 증상이 좋아졌다고 자기 마음대로 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 함부로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다.
 - 예1) 고혈압약은 혈압조절과 함께 합병증예방을 위해 거의 평생을 복용하는 것으로 혈압이 수년간 잘 조절되는 환자 중 생활요법을 철저히 시행하는 일부환자만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감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예2) 항생제: 대개 1주일 처방을 3일 정도만 복용 → 내성만 생길 수 있다.
- ④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가족이나 지인이 먹다 남은 처방약품을 먹거나 주는 경우
 - 의약품의 복용량은 질병의 상태,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타인에겐 위험할 수 있다.
 - 예)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좋다고 마약성 진통제 패취를 주고 사용하게 되었을 때 호흡곤란 및 약물의존성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⑤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 대부분의 약들이 식후 30분 후에 복용 하도록 하는데, 반드시 식사 후에 복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 위장에 자극이 심하거나, 소화기계에 작용하는 약물, 음식물과 같이 투여 시 효과의 증가나 부작용의 감소가 기대되는 일부 약물들만이 식사와 관련이 있다. 식사여부보다는 제 시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약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의사나 약사에게 자신의 약 복용상황을 자세히 알려야한다. 이를 위해 약품 처방전을 반드시 보관하여 필요시 의사나 약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거나, 단골 주치의와 단골 약국을 정해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병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불법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의 무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불성이니, 본래면목이니, 참나, 마음, 진리, 법 등 다양하게 부른다.

그런데 이것 즉 진리는 감춰져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 있다. 지금 이대로의 현실이 바로 진실이요 진리다. 당신이 아프든, 사업에 망했든, 우울하든, 괴롭든 상관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바로 온전한 삶의 진실이며 진리라는 것이다. 이를 승조 스님은 촉사이진(觸事而眞)이라고 하여 부딪치는 것이 모두 다 진리라고 했고, 도오 스님은 촉목보리(觸目菩提)라고 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고 했다. 마조 스님은 입처즉진(立處卽眞), 임제 스님은 입처개진(立處皆眞)이라고 하여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 아님이 없음을 설했다.

그런데 이처럼 이대로가 바로 진리라면 왜 내 인생은 괴로운 것일까? 왜 나에게는 진리가 안 보이고 아픔만이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분별심(分別心) 때문이다. 분별심이란 지금 이대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하면서 좋다거나 나쁘다는 등으로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보자. 몸이 좀 아프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그저 아프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중립적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프다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아파서 괴롭다거나, 아프니까 힘들다거나, 남들은 안 아프데 나만 아프다거나, 옛날에는 안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다거나 하면서 지금 이대로의 중립적인 현상을 분별하고 해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의 다만 ‘아픈’ 현실이 ‘문제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다.

어쩌면 담배와 술을 매일 먹고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수술해서 나왔고 그 결과 앞으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담배도 술도 끊으면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암 진단이라는 현실은 나를 괴롭힌 것이라기 보다는 나를 도운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모든 병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것 자체는 해석되지 않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중립적 진실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병을 해석하지 않은 채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 하게 된다면 병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자연치유’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약을 처방해도 사람마다 치유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병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쓰고 있다. 병을 원망하고 거부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보다 병이 왔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욱 빠른 치유를 보인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한부인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해 하는 단계를 밟아가지만 결국 스스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를 겪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이 수용과 받아들임의 단계에 이른 이들은 순간 지고의 평화와 놀라운 고요함을 얻게 된다고 한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생사 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평화를 얻게 해 준다.

만약 당신이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당신은 이대로 완전하다. 병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꿈같은 삶의 스토리일 뿐 진짜가 아니다.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병으로 인해 괴로운 마음 그 깊은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참된 진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병이 나에게 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 병이라는 현실은 사실은 삶의 진실이다. 진리로써 온 것이다. 문제로써 온 것이 아니라 답으로 왔다. 병이라는 현실을 허락해주라. 가슴을 열고 환영해 주라. 그리고 그 병을 사랑하라.

그것은 나와 따로 떨어진 둘이 아니다. 그렇기에 미워하면 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임을 깨닫고 사랑해주며 인정, 허용해줄 때 병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갈 것이다. 마음에서 병을 문제시하지 않게 되면, 병도 더 이상 문제를 안겨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병에 대한 단순한 마음 자세의 변화이지만, 그 근원에서는 병을 치유하는 핵심적인 마음공부요 약사여래의 따뜻한 손길이 될 것이다. ●



법상(法相) 스님
불심도문 큰스님 은사로 출가.
'목탁소리'(www.moktaksori.kr) 지도법사,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진행
저서로 <눈부신 오늘>, <날마다 해피엔딩>,
<금강경과 마음공부>, <뫓다수업> 등이 있다.

천국이 있다면 아마도 이 곳 산타크루즈 트레킹

세계에는 갈 곳도 많고 걷고 싶은 길들도 참으로 많다. 그 가운데 남미의 안데스 산맥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선사한다. 특히 마추픽추로 향해 걷는 잉카트레킹과 토레스 델 파이네와 함께 남미 3대 트레킹으로 꼽히는 장소, 천국과 같은 풍경의 에메랄드빛 호수들과 하얀 면사포를 쓴 설산들의 사이를 걷는 산타크루즈 트레킹이다.



와라즈 지역과 산타크루즈 트레킹

산타크루즈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와라즈(Huaraz)는 페루에 있다. 해발 3,000m를 살짝 넘어가는 고도에 있는 와라즈(Huaraz)에는 페루에서 가장 높은 산인 와스카란 (Huascarán, 6,768m)과 이름이 같은 와스카란 국립공원(Huascarán National Park)이 있다. 1985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와스카란 국립공원(Huascarán National Park) 내부를 걷는 트레킹이 바로 산타크루즈다. 산타크루즈 트레킹은 보통 3박 4일 동안 그룹을 지어서 다니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긴 기간 동안 모든 짐을 다 어깨에 메고 고지대를 걷는다면 이 트레킹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동행하는 당나귀와 말들이 텐트와 식량, 약간의 개인 짐까지 모두 옮겨주기 때문에 난이도는 다소 하락한다.

트레킹 1~2일차

트레킹은 아침 6시 무렵에 시작된다. 국립공원 입구와 69호수로 가는 길의 입구를 지나 꼬불꼬불 길을 한참이나 타고 올라 4,745m 높이의 포르토헬로(Portochuelo Pass)까지 차로 올라선다. 차로 순식간에 올라와서일까? 벌써 고산병은 뒷골을 타고 머리까지 엄습해온다. 잠시 더 차를 타고 이동하면 바르케리아(Varqueria)마을. 이 마을에서 차에 싣고 온 짐들을 당나귀에게 짊어지게 하고 가벼운 개인용 가방 하나만 등에 메고 걷기 시작한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우아리팜파 협곡 사이의 마을들을 스쳐 보내며 3,800m 내외의 길을 4시간 정도를 걷고 첫째 날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해가 저물면서 만들어낸 붉은 빛이 설산을 물들이더니 순식간에 하늘은 어두워진다. 이틀째의 해가 떠오르자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된다. 고산병이 심해진 일부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 가서 같이 걷는 일행이 조금은 줄었다. 이날은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의 트레킹. 이번 트레킹에서 가장 높은 4,760m의 푼타 유니온(Punta Union Pass)을 걸어서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다. 4,000m를 넘어서자 두어 걸음만 걸어도 숨은 금방 턱밑까지 차올라 호흡이 곤란해진다. 다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두통은 끊임없이 조금만 쉬자고 유혹한다. 이따금 설산에 묻혀져 있던 만년설들이 자기 무게를 못 이겨 우르르 쏟아지며 굉음을 만든다. 천천히 계속 걷다 보니 드디어 통과한 푼타 유니온. 뒤따라온 말들조차 통과하자마자 거친 숨을 내쉬며 길바닥에 드러눕는다. Pass를 통과하자마자 펼쳐진 풍경은 천국과도 같았다. 믿을 수 없는 색을 뽐내는 호수와 높고 넓게 뻗은 설산들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흔들어버렸다.

트레킹 3~4일차

새벽 6시, 셋째 날이 밝았다. 꽤 많은 벌레가 밤사이에 찾아왔고 밤은 춥고 매우 길었다. 셋째 날의 일정은 알파마요(Alpamayo) 전망대를 지나 아와이코차(Arhuaycocha) 호수를 다녀와 다시 전망대부터 하툰코차(Jatuncocha) 호수까지 걸어 내려가 그 너머에 있는 캠핑장으로 향한다. 알파마요에서 잠시 들리는 카사뽀빠(Arhuaycocha) 호수는 산과 산 사이에 은밀히 숨어있다. 호수로 가는 길에는 소들과 말들이 자유로이 거닐며 풀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이 정말 사람의 발걸음이 뜸한 야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어제의 푼타 유니온에서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서일까? 가이드가 금방 도착할 거라 말한 캠핑장은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도달할 수 있었다.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러 밖으로 나오니 바로 옆에 잠들려고 자리 잡았던 소들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의 별과 거친 물살의 강물로 집을 짓고 옆집의 소들과 함께 깊은 잠에 빠진다. 트레킹 마지막 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장시간 트레킹을 해서인지 피곤이 가득하지만 벌써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너무나도 아쉬움이 몰려든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8시 30분에 출발해서 1시~2시까지 카사뽀빠(Cashapampa) 마을까지만 걸어가면 되는 코스다. 계속되는 내리막길을 계속 걸으니 어느덧 마을에 도착했고 힘들지만 행복했던 트레킹도 끝이 났다.

박태식

사단법인 한국여행작가협회 소속
2014 시티은행 사보 여행기사 기고
2014~2015 동국대학병원 사보 여행기사 연재
1인 매체 Korea-trip.com 운영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
한방인삼떡갈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망년회나 신년회 등
잡은 모임으로 인한 극심한 피로로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학교 다니랴, 학원 다니랴 바쁜 아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환절기에
식사나 간식을 통해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야 합니다. 성인에 비해
체력과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퇴계 이황은 어린 시절 학문에 힘써
건강을 해친 이후 자신의 건강을 챙기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활인삼방〉에 여러 가지 보양식 중에
인삼갈비찜이 있는데 이런저런
어지러운 문제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
인삼과 대추로 만든 떡갈비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완화에
딱 맞는 요리입니다.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한방의학에서 수 천년 동안의 경험
에 의해 그 약효가 특출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인삼은 오장(五藏)의 기가 부족한 것을 보하고 몹시 여위고 기운이 약
해진 것을 치료 한다’ 고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인삼은 스트레스 완화
에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 손발이 저린 증상을
없어지게 하는데 좋습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화병을 다스리는데 효과적인 것은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대추만 잘 다려 먹어도
좋습니다. 또 대추는 심장을 도와 혈액이 잘 돌도록 하고 신경을 안정
시키며 폐와 기관지를 도와 기침을 멎게 하고 건조한 목을 풀어줍니다.
게다가 소화흡수 능력을 키우고 변비를 없앤다고 합니다.

떡갈비는 갈비살을 곱게 다져서 양념해 치넨 후 갈비뼈에 도톰하게 붙
여 양념장을 발라가며 구워 먹는 전통향토음식입니다. 대추에 인삼을
등글게 말고 다시 고기를 다져서 말아 구워주고 한방소스를 곁들여
색들인 연근과 곁들이면 맛과 영양은 물론 보기에도 좋습니다.

재료비도 많이 들지 않고 조리도 간단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
니다. 연근과 삼겹살을 섞어서 식감이 좋으며 겨울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건강 레시피입니다.

요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힘든 세상입니다. 건강한 에너지를
서로서로에게 전해주며 서로를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토닥토닥 등
두드려주며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는
평범하지만 잊고 있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세상
이 되고 동그란 떡갈비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희망을 꿈꾸기
를 소망해 봅니다. ●



류 현 미 전통음식연구가
전통식문화 연구소 소장.
KBS '한국인의 밥상', '무엇이든 물어봅시다', SBS '모닝와이드 맛있는 요리대결',
MBC '공감' 등 방송 출연과 국내외 잡지 기사를 통해 우리 음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저서로 <한식대사 류현미의 집밥초대>가 있다.



재 료
쇠갈비살 100g, 삼겹살 50g, 연근 다진 것 2T,
대추, 인삼, 두릅순, 꿀, 고추
고기양념 ▶ 간장 1T, 소금 1/4T, 설탕 1/2T,
다진 마늘 1T, 매실청 1/4C, 후추가루 적당량,
참기름1T
한방소스 ▶ 한방물 1C, 간장 2t, 꿀 1T,
매실청 1T, 녹말물 12g
한방물 ▶ 당귀 10g, 황기10g, 물2C , 대추 5개
녹말물 ▶ 녹말 1/2T, 물 1/2T
연근 ▶ 치자, 백련초, 찹쌀가루1/2C, 식용유 1/2C

만드는 방법
① 쇠갈비살과 삼겹살을 다져서 고기양념을
하여 많이 치넨다.
② 연근 다져서 넣어준다.
③ 치넨 고기 위에 대추를 올리고 다진
대추를 꿀로 바르며 수삼과 말아준다.
④ 수삼의 직경이 1cm가 넘지 않게 수삼에
밀가루를 묻히고 줄기부분만 말아준다.
⑤ 오븐으로 200도에서 10분간 예열하여
180도에서 15분정도 잘 굽는다.
⑥ 당귀와 황기 대추를 넣어서 끓인 한방물에
녹말물을 넣어 소스를 만들어 준비한다.
⑦ 물들인 연근을 찹쌀가루를 묻혀 지져준다.
⑧ 연근을 올리고 인삼떡갈비를 먹기 좋게
잘라서 올리고 한방소스를 뿌려준다.
⑨ 청 · 홍고추를 고명 만들어 올려주어
도자기에 담아낸다.

Tip
① 오븐이 없어도 프라이팬에 불을 낮추어
식감이 나도록 구워준다
② 인삼떡갈비를 통째로 찐 단호박과
베이비채소와 소스를 곁들여낸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쏭달쏭 의무기록

여러과에서 진료를 보았는데
사본발급 신청 시 각 과별로
주치의와 면담을 하여야 하나요?

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 사본 발급지침 (의정 65507-275)에 의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고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하며, 필요하신 진료기록은 각 해당과로 접수 하여 주치의 면담 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결과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환자 본인이 확인된 경우, 환자의 검사결과 통보는 진료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동의없이 환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진료기록을 Fax나 우편 및
E-mail로 받을 수 있나요?

해당진료과의 주치의와 면담을 원칙으로 하며 의무기록에는 검사결과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비밀문서이므로 직접 내원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서류발급 시 본인이 왔는데
왜 신분증이 필요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 (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근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무기록은 얼마동안 보관 하나요?

진료기록의 보관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부분 3년입니다.

사망환자의 사본발급은 가능한가요?

사망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하며, 친족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거, 사망환자의 사본발급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 사본
발급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습니다.(강제규정 아님) 만 14세이상인 환자의 기록을 친족이나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3회 연속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아 3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평가는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행한 수술에 대한 항생제 투여시기와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항생제 투여기록, 환자관리 등을 종합점으로 산출해 기관별, 수술종류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 평가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평가대상인 12개 수술 항목의 종합점수에서 96.7점을 받아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수술환자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는 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갑상선수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10년 열정을 바탕으로 100년 첫걸음 내딛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일산한방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전국 규모의 고객중심병원으로 도약을 선포하는 개원 10주년 기념식을 9월 15일 5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기념식에는 이운룡 국회의원, 김미현 고양시의회의원, 강천수 9사단장 등 대 · 내외 귀빈과 교직원 약 4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원 1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본원의 ‘비전 2020’을 선포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공유했고, 2부에서는 1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념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민구 병원장은 “자비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고객중심병원”, 정지천 한방병원장은 “한의학을 선도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믿고 찾는 한방병원”의 ‘비전 2020’을 선포했다.



국립암센터와 진료협력 협약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10월 27일 국립암센터와 진료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암 진료와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국립암센터와 협약을 맺게 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비전2020’ 실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은 △진료협력 △학술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교육훈련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 활용 등을 담고 있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민구 병원장은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원장님과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협약관계를 넘어 의학발전을 선도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도약하여 협력체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12회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 ‘Astana Leisure 2015’ 참가

국제진료센터는 지난 5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되었던 국제보건박람회에 이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2회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 ‘Astana Leisure 2015’에 참가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직항노선이 열리면서 최근 의료한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로 이번 박람회는 많은 환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열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국제진료센터는 9월 24일에 대한민국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열린 아스타나 심장혈관센터와 검진센터를 돌아보는 팸투어를 실시했고, 25일에는 두만호텔에서 현지의료관광 에이전시와 정부 인사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비즈니스 미팅에서 현지 에이전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고양시청에 쌀 화환 기부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 화환을 9월 17일 고양시청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실천을 했다.

이번 기부는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5개 단체에서 보내온 쌀 510kg을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졌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약 1,500여 명의 교직원 이 힘을 모아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와 연탄기부 등 꼭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사회에 기여하는 병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고양시청에서는 이번에 받은 쌀을 독거노인 무료급식소와 식사동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병원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실천에 감사를 전했다.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으로

훈훈함 더하는 ‘한방의 날’ 개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1층 전시장에서 ‘한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한방약재 및 보양제 전시 △명문가의 건강장수 비결 영상시청 △머리가 좋아지는 총명화 만들기 △향으로 마음 다스리는 향낭 만들기 등을 준비하여 ‘보고’, ‘듣고’, ‘느끼는’ 한방오감체험으로 진행했다. 특히, 10월 15일에는 고양시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의료취약계층을 한방병원으로 초청하여 7개 진료과에서 침과 뜸 등 다양한 한방치료를 시행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민상연 교육연구부장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수천 년 동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며, “한방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방과 더욱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한방 교수의 건강한 뇌 캠페인

‘양·한방 융합 뇌건강 클리닉’을 운영하는 신경과 김광기 교수와 한방신경정신과 구병수 교수는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을 주제로 서울, 경기지역을 돌며 조기진단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해법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김 교수와 구 교수는 꼭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예상보다 많은데 안타까움을 느껴 진료보다 치매예방과 건강한 뇌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뜻을 모았다.

두 교수는 휴일도 반납한 채 대형마트 문화센터와 서울, 경기지역 사찰 등을 찾아다니며 뇌의 소중함을 전파하여 참석한 이들에게 뜨거운 공감을 얻고 있으며, 서양의학에서 보는 뇌건강과 동양의학에서 다루는 뇌에 대한 건강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강좌는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것이 100세 시대 행복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국제봉사활동 펼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 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스님)와 함께 8월 2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오지마을을 찾아서 의료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김광기 교수 등 총 5명의 의료인이 참여하여 스레이 스남 지역 클랑하이 마을과 푸억 지역 르뵐아 마을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했다.

김광기 교수는 “생후 12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고열이 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한 이들이 많다.”며 걱정했다. 또 “20대 뇌종양이 의심되는 환자가 있어 큰 병원에 꼭 가보라고 당부했는데 환자가 그제서지만 했다.”며 “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신경과 김동역 교수

‘2015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신경과 김동역 교수는 26일 충북 음성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열린 ‘2015 계량측정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김동역 교수가 뇌혈관질환을 진단하는 참조표준인 한국인 뇌 MR 영상지도를 개발하고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동역 교수는 같은 과에 재직하고 있는 류위선 교수를 비롯한 전국 11개 병원 신경과 교수들과 협력하여 표준 허혈 뇌지도 참조표준 도판을 개발 하였고,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보급하여 뇌졸중 환자 진료에 활용되도록

하였다. 이 허혈 뇌지도 도판은 뇌졸중 분야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아 10월 중순 새로 발간된 뇌졸중 교과서 2판에도 수록되었다.

뇌혈전 나노영상기술 개발로 국제 학술지 ‘Theranostics’저널 표지논문 선정

신경과 김동역 교수 연구팀과 KIST 김광명 박사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혈전의 주요성분인 피브리노를 표적-탐지하는 금나노입자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팀은 피브리노표적-금나노입자와 CT를 이용해 생쥐의 뇌혈관을 막고 있는 뇌혈전의 위치 및 크기를 신속하게 고해상도로 영상화할 수 있고 뇌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의 치료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본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인 ‘Theranostics’ (피인용 지수 8.022)에 발표되었으며 10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피브리노표적-금나노입자는 기존의 비표적 금나노입자와 달리 뇌혈전도 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목동맥혈전을 탐지하는 능력도 2배 이상 뛰어나다.

영상의학과 김정숙 교수

국제인명센터(IBC)에 21세기

최우수 지식인으로 선정

영상의학과 김정숙 교수가 국제인명센터(IBC)의 ‘21세기 최우수 지식인’에 선정되는 동시에 ‘2015년 상위 100대 전문가’에 등재되었다.

이번 등재는 환경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관련 질환 진단표준화에 대한 논문 발표와 활발한 활동 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2015년 마르퀴즈 후즈 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5)에 등재되기도 했다.

한편, 김정숙 교수는 대한흉부영상의학회 석면질환연구회 회장,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대의원,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 판정위원회 위원장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새로운 미래를 위한 개원 24주년 기념식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10월 22일 1층 강당에서 이동석 병원장 및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주년 개원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먼저 모범상 15명, 20년 장기근속 32명, 10년 장기근속 12명에 대한 시상식을 하였다. 이동석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경주병원은 올해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큰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현재 인력부족과 의료기관 인증평가 준비로 인한 업무가 과중되어 힘들겠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산고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2회 미용성형 심포지엄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10월 24일 국제힐링센터 5층 힐링홀에서 제2회 미용성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북지역 전문의를 포함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본원 성형외과 신혜경, 정규용 교수를 좌장으로 이주현(4월 31일 성형외과), 국원석(국원석 성형외과), 박동만(비오 성형외과) 및 최정호(최정호 성형외과)전문의를 진행하였다. 이동석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용성형센터가 개설 2주기를 맞이하여 두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지역주민과 국내외 의료관광객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고 유치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방사선 종양학과 SCI급
국제 학술지에 논문 게재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현수 교수와 백종근 의학물리사는 2015년 한해 동안 SCI급(Tumori, BJR, JKPS) 국제학술지에 각각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총 5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최근에는 영국방사선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저널인 British Journal of Radiology에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논문도 게재하는 등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간호부 1004 day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간호부에서는 10월 2일 1004Day를 맞이하여 로비 및 병동에서 입원 및 외래환자들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부 받은 물품과 구입한 양말 및 청국장 등 바자회를 열어 판매하였으며, 병동에서는 병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손톱 깎기 및 손 마사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외래 방문객들에게 무료 차 봉사과 혈압측정, 고혈압 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판매한 수익금 전액은 불우 이웃돕기에 쓰여 질 예정이다.



중국 의료기관 관계자 초청
의료관광 팸투어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는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중국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북 의료관광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중국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경주병원의 우수한 의료시설 및 장비, 의료체험 등의 기회를 통해 경북 의료관광의 적극적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식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복지동 3층에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되어 9월 1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병원 및 센터관계자,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지역 정신보건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축하를 보냈다.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된 광역단위 정신보건 전문 기관이며, 기획홍보, 정신건강증진, 생명존중 등 3개팀 10명이 근무한다. 이광현 센터장(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경북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보건사업의 허브가 되어 도민의 치친 마음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DUMC NEWS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로비 편의시설 및 대기환경 개선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내원객과 환우들에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층 로비에 ‘카페 에스파니’를 입점하여 9월부터 운영했다. 카페 입점으로 만들어진 휴식공간과 동시에 안락한 진료대기공간을 위해 접수공간과 진료실문을 친환경 소재로 개선하여 내원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내원객과 환우들이 편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치유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치료실 확장 오픈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재활치료를 받는 환우들이 좀 더 쾌적하고 독립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치료실을 확장하여 10월 12일 오픈했다. 운동치료실에는 원형트랙을 조성하여 공간적 제약 없이 걷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작업치료실은 독립된 연하치료공간 확장으로 환우들의 치료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일상생활 동작훈련치료에 알맞은 ADL 실을 확보했다. 재활치료실 피재열 파트장은 “환우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개원 19주년 교직원 워크숍 열어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개원 19주년 교직원 사찰순례 및 워크숍’을 KT&G 강화수련원 및 강화도 전등사에서 개최했다. 1부에서는 에듀앤 이동근 대표의 일과 행복이란 주제로 팀워크 구축 및 일의 즐거움에 대한 CS특강을 진행하였으며 개원 19주년을 기념하여 모범교직원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였고 친절교직원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했다. 2부에서는 장기자랑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여 교직원간 단합과 즐겁고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상의 의료서비스(공감, 존중, 효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교직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힐링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DUMC NEWS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히포에서 여름 농촌 봉사활동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아리 ‘히포메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1리에서 농촌 일손 돕기 및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과 ‘히포메서’ 학생 등 40여 명이 참가하여 신촌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이관 교수를 비롯한 교수들이 무료 진료 활동을 실시했으며, 학생들은 혈당, 혈압 체크 및 초진을 하면서 교수들의 진료를 지원했다. 의과대학은 자비와 나눔을 실천한다는 사명으로 1992년부터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 농촌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생들에게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봉사 정신을 기른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인증평가 실시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은 2015년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10월 26일에서 10월 30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실시했다.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인증평가의 결과는 △인증(3

년 또는 5년) △인증유예(1년간의 준비기간을 다시 부여한 후 재평가) △인증불가(인증유예를 3번 연속 받은 경우)로 구분해 판정을 내리며, 1월 중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

한의과대학

제15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참가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한의약산업 전문전시회인 “제15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에 참가해 무료 한방진료와 다양한 한방체험 행사를 제공했다. 올해는 ‘한의약산업의 과학적 계승, 창조혁신’의 주제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목, 한의대 교수)이 주관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은 부속 한방병원인 경주, 일산, 분당한방병원에서 참가하여 행사 첫 날에만 약 1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와 침, 뜸 등의 진료와 한방검진에 대한 전문 상담을 받았다.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해 진료와 상담을 받는 등 한방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한방엑스포는 각종 한방제품과 정보를 한자리에서 모아 대구, 경북이 한의약 산업의 중심지임을 알리고, 한방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의약의 현대화, 세계화, 과학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한의약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열고 있다.



나눔의 동행

화장사 은성 스님과 연진 스님 2억 원 쾌척

대구광역시 화장사 은성 스님과 연진 스님은 8월 18일 병원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경주병원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쾌척했다.

은성 스님과 연진 스님은 “무소유를 실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회향하고자 기금을 마련했으며, 동국대학교병원이 종립병원으로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환우 치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내원객이 좀 더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값지게 사용할 최고급사양 버스구입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6월 병원 버스 구입에 써 달라고 버스구입비 전액을 쾌척한 증취 스님과 대덕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최고급사양의 현대 유니버스(45인승)를 구입했다.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9월 14일 주차장에서 고사를 지내고, 이날 증취 스님이 준비한 2,000여 명분의 떡을 환우와 보호자들과 나누어 먹으며 안전운행을 기원했다.

이번에 구입한 버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의료봉사와 템플스테이, 사찰순례활동 등의 자비나눔을 실천하여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병원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원정사 설봉 스님, 저소득환자를 위한 후원금 3천만 원 쾌척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기원정사 설봉스님은 9월 22일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3천만 원을 기부했다.

설봉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약사여래부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조금씩 기금을 모았다.”면서, “병이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스님의 큰 뜻이 헛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염원하는 큰 뜻! 자비 나눔으로 동참해주십시오.

동국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숭고한 뜻에 보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약사여래부처님의 12대원을 실천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발전

발전기금 안내

- 동국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현금, 주식, 기타자산이나 부동산, 귀중품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우선 약정하시고 추후 납입하셔도 됩니다.

기부자 예우

구 분		의료비 감면					
		건강검진 (년 1회)	진료비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주치의	한방보약	영안실	비 고
회원예우	누적기부총액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본인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	(진료비 무료 연간 적용기간)
다이아몬드	5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무료(50%)	무료(무료)	연간 180일 이내(입원)
에메랄드	10억	무료(무료)	무료(50%)	배정	50%(50%)	무료(무료)	연간 90일 이내(입원)
사파이어	5억	무료(무료)	무료(20%)	배정	50%(30%)	50%(50%)	연간 90일 이내(입원)
루비	1억	50%(50%)	20%(20%)		20%(20%)	30%(30%)	
도세/자애	5천만원	30%(20%)	20%		20%(20%)	20%(20%)	
신실/섭심	1천만원	20%(20%)	15%		20%(20%)		
	1백만원		10%				

1. 상기 내용 중 배우자는 기부자 생존시까지로 한정됩니다.
2. 영안실은 시설사용료에 한하며, 상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서 따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진료비와 한방보약의 감면은 별도로 적용되며, 한방보약은 직접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 문의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 TEL 031. 961. 5713 FAX 031. 961. 5719 e-mail dumcco@dumc.or.k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CS경영팀

▶ TEL 031. 961. 9362 FAX 031. 961. 9369 e-mail kingdom@dumc.or.kr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기획예산팀

▶ TEL 054. 770. 8126 FAX 054. 770. 8500 e-mail dumccs@dumc.or.kr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원무팀

▶ TEL 031. 710. 3718 FAX 031. 710. 3780 e-mail dumcbh@dumc.or.kr



밝은 눈 & 밝은 마음 안과질환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부처님의 자비나눔과 의료시혜를 실천하고자 (사)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밝은 눈과 밝은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 1_ 각막질환, 망막질환, 선천성 소아안질환, 소아사시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분
 - 2_ 사회 저소득 취약계층(최저생계비 200% 이하) 및 외국인 근로자
- ▶ 위 기준 적합자 중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발

대상 질환

각막질환, 망막질환, 선천성 소아안질환, 백내장

지원 내용

- 1_ 치료목적의 동국대학교병원 진단검사비, 수술비
- 2_ 지원한도 : 1인(眼)당 지원범위 100~300만원 한도 (단,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문의처

- 1_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사회사업실
 - ▶ TEL 031. 961. 8360~1 Fax 031. 961. 8369
 - E-mail stunningbr@dumc.or.kr
- 2_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원무팀
 - ▶ TEL 054. 770. 8683 Fax 054. 770. 8501
 - E-mail dumccs09@dumc.or.kr

동국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내역

동국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 8. 1 ~ 2015. 10. 31

연진스님, 은성스님	₩201,000,000	한국실명예방재단	₩2,554,250
국민은행	₩70,0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남지회)	₩2,396,340
엄순희(설봉)	₩30,000,000	(재)아산사회복지재단	₩1,178,020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10,000,000	공덕인	₩1,000,000
홍순지	₩3,000,000	김상은	₩1,000,000
한국심장재단	₩2,783,370	이명규	₩1,000,000
(사)생명나눔실천본부	₩2,687,170		

(재)한국 배출권 거래소 유형 협 회	국종돈	김명희	김술아	김정훈	김혜진	박보경	박춘근	성낙진	심미나	유재일	이말보	이애영	이준길	임현진	정영희	조성민	최문전	추경란	홍은숙	
	권도윤	김문식	김시연	김주현	김희진	박상은	박현미	소선기	안광삼	유정임	이명규	이영실	이지영	지비나	정원기	조승호	최민희	추경희	홍은희	
	권두경	김미경	김영미	김주희	남유화	박상희	박현숙	소선기	안대승	유주형	이문정	이용찬	이지원	남세상	정윤정	조은영	최상돈	하민영	황보수	
	권범선	김미숙	김영복	김지예	남현미	박성미	박혜진	손귀득	안연순	유창선	이미영	이원용	이지은	장순희	정은경	조현선	최영진	하연주	황윤주	
	권병철	김미영	김영진	김창렬	노미경	박성원	박효진	손금영	안영길	윤복연	이민우	이원호	이진호	장연화	정지선	조혜영	최예인	하정희	황인동	
	권삼숙	김미영	김영진	김지선	노주원	박성주	박효진	손민정	안희덕	윤수임	이병기	이유나	이태영	장유민	정인연	조혜원	최유안	하현지	황정희	
	권성옥	김민선	김영혜	김태규	도한호	박성주	배경연	손수진	앤지앤	윤승대	이보은	이은주	이현란	장종섭	정인원	주은영	최유현	한승이		
	강보라	권수민	김민호	김용배	김태숙	동국대	박세진	배상만	손정은	텔레콤	윤정미	이선아	이은하	이항미	장태영	정재우	지영한	최윤호	한영희	
	강석진	권일진	김방희	김용석	김태영	경주영원	박소희	배서영	손정화	양경승	윤형근	이선희	이자경	이현희	장호근	정재현	진경애	최은진	한은숙	
	강소영	권태용	김삼기	김용숙	김태은	류대안	박순양	배효상	손주연	엄희경	윤희진	이소영	이재우	이형경	정경숙	정지원	진선희	최인주	한은숙	
강연주	권효숙	김상규	김율리	김필자	모종은	박순자	백용해	손주영	여민영	이강현	이수경	이재환	이호준	정경윤	정지유	진영조	최정민	한은숙		
강지영	권희재	김선경	김은미	김하겸	무주스님	박신애	백윤정	손효정	여민혁	이경미	이수철	이정백	임승순	정경철	정호근	차옥련	최정숙	한정훈		
강현우	김강림	김선희	김은애	김하경	(심선숙)	박영근	서미경	송동현	오미정	이경애	이수현	이정연	임선화	정다영	정희정	채기수	최종기	현문스님		
경보호	김경아	김성겸	김은영	김한성	민상연	박유경	서상연	송혜정	오민구	이광훈	이수환	이정하	임선희	정미라	조계종	채봉희	최준용	(노미숙)		
공성화	김경옥	김성권	김은정	김혜정	박근	박재경	서영문	신경민	오성은	이귀숙	이순애	이정훈	임윤복	정석화	사회복	채석래	최진영	현미숙		
곽경아	김경희	김성원	김은희	김현서	박기철	박재희	서영진	신경수	오진숙	이귀숙	이순옥	이정희	임윤정	정숙희	지재단	철은스님	최창기	홍련암		
곽유희	김국현	김성일	김재학	김현정	박동우	박정숙	서 준	신석재	유진옥	이규홍	이순출	이종득	임종대	정순탁	조근대	(이순자)	최한기	홍민재		
곽희경	김남희	김메인	김정미	김형관	박동진	박정희	서준식	신성준	(혜 림)	이나현	이순희	이은주	임종수	정승은	조동삼	청영스님	최해용	홍보람		
구병수	김도현	김세희	김정민	김형진	박명조	박지홍	서희주	신윤주	유영석	이동백	이승철	이주형	임현민	정승현	조민주	(사은미)	최혜숙	홍승옥		
구순점	김동환	김소원	김정숙	김혜미	박미형	박진우	설창미	신은희	유은정	이동영	이승호	이준규	임현술	정연호	조민지	최명렬	최희정	홍은기		



세속 나이로 이제 60세를 넘긴 한 선방 스님은 두통과 근육부위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병원에 가볼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평생을 선객으로 살아오신 분이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할 도리를 없는 거지요. 속가의 가족과 인연을 끊어진지 오래였고, 처지가 비슷한 도반스님들 또한 도와줄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국대학교의료원의 승가의료비 지원프로그램과 연결되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뇌MRI, CT,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뜻밖에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아 응급수술을 한 뒤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가관명)	(대표자 :)	☐ 익명요청 (모든 홍보물에 익명으로 표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양/음)
본 의원과의 관계 (※ 중복 체크 가능)	☐ 일반 ☐ 불교계 ☐ 교직원 ☐ 동문 (입학년도 :) 대학(원) : 전공 :)	☐ 기업/단체 ☐ 기타 ()
직장명	부서	직위
우편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기부 추천인	

약정

약정액	현금	원 (₩)	)	☐ 현금기부(	원)상당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발전기금위원회 일임 ☐ 병원발전기금 (☐ 일산병원 ☐ 경주병원 ☐ 분당한방병원) ☐ 학교발전기금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 지정기금 (지정)				
기부의견					

방법

본인 자동이체 신청	월정기납 : 매월 ()일	예금주 : 이체은행 :
	본인 자동이체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037-00-000011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일산)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2-076965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경주)
	☐ 입금계좌 : 국민은행 368137-01-001162	예금주 : 동국대학교의료원(분당)
급여공제	사번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20년유일

기부(약정)인 : 서명(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 동국대학교 의료원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나눔의 기쁨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정서 송부 : 주소 ▶ 1032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 이메일 ▶ dumcco@dumc.or.kr / 팩스 ▶ 031•961•5719
- 문의 :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031•961•5713

보내는 분

주소

연락처



받는 사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동국대학교의료원
전략기획팀 대외협력담당

10326

건강하고 행복한 동행 동국대학교의료원 MAGAZINE 2015 Winter | VOL. 5

‘고려의학’의 전문 의료인력 ‘동국’의 전문 의료인력 ‘동국’의 전문 의료인력

고려의학 전문 의료인력
고려의학 전문 의료인력



이곳에 풀칠하세요.

절취선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병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건강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진료과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향
- 동서양 의학 접목을 통해 각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용
- One stop system 건강진단 실시로 당일 건강진단 후 신속한 당일결과 상담(판정) 가능
- 고객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 건강검진 후 위험인자나 질병 발견 시 지속적인 사후관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본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정밀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리미엄 속박검진	다양하고 정밀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짧은 시간에 검사하기 어려운 노약자, 지방거주자 및 편안하고 여유롭게 검사하고자 하는 수검자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비신랑·신부검진, 청소년검진, 장수검진 등 생애 주기별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31. 961. 7698~9, 7702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hpc/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건강검진 프로그램

기 본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은 비교적 건강한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검사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특별한 건강상 문제없이 건강관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종합검진	기본형에 추가로 소화기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질환, 성인병 예방 및 발병률이 높은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위한 고급형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플래티늄 종합검진	프리미엄 종합검진에 뇌혈관질환까지 확인할 수 있는 VIP를 위한 가장 최고급 종합검진입니다. 주요 암질환과 각종 위험인자를 광범위하게 정밀진단하는 최상의 프로그램입니다
특 화 종합검진	가족력, 이력 등에 따른 특화된 검진으로 개개인 질환을 체크할 수 있는 맞춤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및 예약	054. 770. 1430~3 인터넷예약 ▶ http://www.dumc.or.kr/gj 예약시간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의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일산한방병원 031-961-7955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054-770-1400~1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031-710-3712/3781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동국대학교의료원은 고객과 자비 중심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